

작년 수능보다 국어 어렵고 수학·영어 쉬웠다

광주·전남 고3 진학부장 '9월 모의평가' 분석

영어A/B형 난이도 차이 뚜렷…'갈아타기' 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바로 미터'인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수학과 영어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 영어는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간 난이도 차이가 뚜렷했지만 국어와 수학은 A·B형간 차이가 좁혀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3일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들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국어는 어렵게, 수학과 영어는 유사하게 출제됐다.

국어의 경우 자연계생이 응시하는 A형과 문과생이 주로 보는 B형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B형은 지난 6월과 비슷하고, A형은 약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작년 언어영역에 비해 어렵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어려웠다"며 "자연계생 사이의 변별력을 고려한 측면이 있어 A형이 B형보다 쉽긴 하지만 아주 쉽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2교시 수학 영역은 A·B형 모두 지난해와 6월 모의평가 때보다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 입시학원들은 인문계생이 보는 A형은 작년과 비슷했지만 자연계생이 보는 B형은 다소 쉬웠다고 보고 있다.

임성호 하늘교육중앙학원 대표는 "B형의 난이도를 더 많이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B형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인 기하와 벡터에서 쉽게 출제됐다"고 말했다.

대입에서 변수로 부상한 영어 영역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작년 수능

보다는 쉬웠으나 6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가 뚜렷했다고 입시학원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영어 B형을 선택한 비율이 3월 학력평가 때 87.2%에서 6월 모의평가 82.3%, 7월 학력평가 80.0%에서 이번에 75.1%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A·B형간 난이도 차이가 6일까지인 수능 원서접수 마감까지 'A형으로 갈아타기'를 부추길지 주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중한 문제풀이

3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광주 대광이고 3학년생들이 문제 풀이에 열중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행기 탑승객 하차

법률적 제지 방안 추진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내려달라고 요청해 출발이 늦어지는 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를 전에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본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점상적 여행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만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기장 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치평동 광주가정법원

내일 신청사 준공식

광주가정법원은 5일 광주 서구 치평동 신청사 준공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관 광주시의회 의장, 장병우 광주고법원장, 직무대행, 박성재 광주고검장, 황한식 광주지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광주가정법원은 개원 이래 광주지법과 함께 청사를 사용하다가 지난 7월 독립 청사를 마련해 이전했다. 신청사는 140억원을 들여 7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윤현석기자 chado@kwangju.co.kr

광주 어린이집 40%가 법규 위반

시의회 김선호 의원 밝혀

2년간 207곳 감사에 적발

아동 허위등록 76곳 최다

광주지역 어린이집 가운데 약 40% 정도가 각종 법규를 어겨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의회 김선호(교육의원·서구)의원의 5분 발언 자료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은 1248곳으로 9666명의 보육교직원이 4만8161명의 어린 이를 보육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보육료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총 2480억4000만 원이다.

광주시의 각 자치체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이중 500여 곳의 어린이집을 감사한 결과 207곳의 어린이집이 각종 법과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은 원장 자격 정지 48명, 과징금 처분 1억2000만

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안전관리부실, 급식관리 부실, 건강진단 미실시, 교직원 허위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재무회계 기준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들 어린이집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중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보육교사를 교묘하게 등록해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은 원장 자격 정지 48명, 과징금 처분 1억2000만

원, 운영정지 8곳, 교사자격정지 7명, 환수금액 3억40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방대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자 24명의 자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위한 적극적인 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어린이집의 법과 규정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솔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롭 06시 07분

달롭 18시 56분

달진 04시 46분

달침 17시 56분

초가을 진입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점차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맑음	17/29 C
목포	맑음	18/28 C
여수	맑음	19/28 C
나주	맑음	13/30 C
완도	맑음	17/29 C
구례	맑음	14/30 C
강진	맑음	15/29 C
해남	맑음	15/29 C
장흥	맑음	15/29 C
순천	맑음	13/29 C
영광	맑음	14/29 C
진도	맑음	16/28 C
전주	맑음	14/29 C
군산	맑음	15/28 C
남원	맑음	12/29 C
흑산도	맑음	22/26 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일비단	북~북동	0.5~2.0m	0.5~2.5m	0~2.5m	0~2.5m
남해	서부 일비단	북~북동	1.0~2.0m	1.5~2.5m	0~2.5m	0~2.5m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단	북~북동	0.5~1.5m	01:30	06:54
남해	서부 일비단	북~북동	1.5~2.5m	13:32	18:5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목)
날씨	22/26
최저/최고	19/29
날짜	6(금)
날씨	21/28
최저/최고	19/29
날짜	7(토)
날씨	20/29
최저/최고	20/29
날짜	8(일)
날씨	20/29
최저/최고	20/29
날짜	9(월)
날씨	20/29
최저/최고	20/29
날짜	10(화)
날씨	20/29

광주·전남 학생 3850명

지난해 '학업중단' 했다

고교생 100명 중 2명 꼴 포기…절반은 학교 부적응 탓

2012년 광주·전남지역에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초·중·고교생이 38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생은 100명에 2명꼴로 학교를 떠났고 절반 정도가 학교 부적응이 원인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은 3850명으로 전체 제적 학생 수 48만6311명의 0.79%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1%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광주가 1918명, 전남은 1932명으로 숫자는 전남이 많지만 제적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 0.8%, 전남 0.77%로 광주가 전남보다 다소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중학교의 경

우 광주 765명, 전남 603명으로 제적 학생 수와 비교해 각각 0.45%, 0.34%이다. 고등학교는 광주 1153명, 전남 1329명으로 제적 학생 수 비율은 광주 1.71%, 전남 1.84%이다.

광주는 초·중학교 비율이 전남은 고교생 비율이 상대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학업 중단 사유로는 초·중학교의 경우 미인정 유학·장기결석·해외유학이 많았다. 고등학교는 광주의 경우 1133명 중 559명(48%), 전남은 1329명 중 725명(54%)이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났다. 또 학교폭력이나 학적 위반으로 퇴학을 당한 학생도 광주 52명, 전남은 48명으로 모두 100명에 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추석연휴 무안↔오사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

출발일시 9월 19일 07:00 무안출발 - 21일 23:30 무안도착

전세기



온천휴양 + 힐링코스



와카야마 디럭스 온천 꽉찬 3일 135만원

역사탐방 + 휴양코스</h3